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질 향상 사례 발표회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환자 안전 문화 확산과 고객 만족 실천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병원 여미홀에서 제19차 의료질 향상(Quality Improvement-QI) 우수사례 발표회를 정승일 의료질관리실장의 사회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사진)

구연부분 최우수상은 진단검사의학과와 '검체 검사와 관련된 병동 다빈도 질문에 대한 개선 및 직원 만족도 향상'이 받았다. 우수상은 진료협력센터 '초진 환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 활동', 61병동 '내분비외과 항암화학요법의 표준화된 업무 프로토콜 개정 및 교육을 통한 간호사 직무 만족도 향상'이 차지했다.

정승일 의료질관리실장은 "환자 안전과 고객 만족, 감염관리, 업무 프로세스 등 의료서비스 전반의 품질 향상을 위한 질 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조선대병원, 베트남 재활전문병원과 협약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김경중)은 지난달 29일 베트남에서 방문한 기관대표, 의사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약 체결(MOU) 및 팸투어를 실시했다.(사진)

5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베트남 방문단은 판민호양 병원장(Dr Phan Minh Hoang), 딘 광 탄 재활상담교수(Dr Dinh Quang Thanh), 르티하췌엔 재활의학과 교수(Ms Le Thi Ha Quyen)를 비롯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조선대병원과 호남권역 재활병원을 방문했다.

조선대병원 대외협력실 주관으로 의료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는 의료교류를 위한 MOU 체결 및 논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호남권역재활병원으로 이동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팸투어는 △로봇보행치료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등을 살펴보고 기기설명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듣고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노병하 기자



무안경찰, 북한이탈 주민 환우 위로·격려

무안경찰(서장 김정완)은 5일 무안군청, 안보자문협의회와 함께 관내 거주 북한 이탈주민 환우들을 찾아 위로·격려했다고 밝혔다.(사진)

북한 이탈주민 A씨는 "연말이 되면 가족 품이 그리운데 따뜻한 위로와 함께 선물도 챙겨줘 힘이 됐다"고 말했다.

김정완 서장은 "무안군청과 안보자문협의회와 협력해 북한 이탈주민에 도움을 주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월곡2동·침단2동, 분리배출 우수동 선정

광주 광산구 월곡2동·침단2동이 5일 광주시 주관 분리배출 평가 '우리동네 분리배출 클래스'에서 우수동으로 선정됐다.(사진)

'우리동네 분리배출 클래스'는 단독주택과 상가에서 분리배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평가다.

월곡2동은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해서 관계 단체와 환경정화 활동, 시민 대상 홍보 등을 진행하고 주민 제안을 반영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이동식 CCTV를 운영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침단2동은 '재활용 동네마당(거점 배출 시설)'을 활용해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보육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육을 하는 등 자원순환 인식과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우수 사례로 뽑혔다.

김상철 기자



광주 남구, 돌봄이웃 고교생 장학금 전달

광주 남구가 후원금을 받아 고교 재학생 80명에 장학금 8000만원을 전달했다.(사진)

5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장학금 전달은 ㈜라인그룹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지난 2021년 7000만원을 기부한데 이은 두 번째 마련됐다.

김병내 남구청장과 공병탁 ㈜라인그룹 대표 및 관계자, 재학생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장학금은 남구에서 추천한 취약계층 자녀 고등학생과 학교성적 우수 고등학생의 학업 지원 용도로 쓰인다.

김병내 남구청장과 공병탁 대표의 전달식을 통해 관내 고등학생 30명에게 1인당 100만원 전달, 남은 50명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했다.

공병탁 대표는 "지역사회에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상이 인턴기자



전남개발공사, 사업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지난 5일 택지개발 사업현장 관계자들과 원활한 사업추진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2023년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진)

현재 시공중인 남약신도시 오룡지구와 여수 죽림1지구를 대상으로 계약관련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고 적절한 업무처리를 위한 공공계약 및 청탁금지법교육, 시공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계약이행에 따른 주의사항, 대금청구 간소화 절차 등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검사 시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성, 준공검사이시 업체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박간재 기자



국민연금 광주본부, 순천대서 연금특강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4일 순천대학교 행정학과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바로 알기 및 취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청년들에게는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 제5차 종합운영계획(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등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여한 순천대 4학년 A학생은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토론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졌다"며 "여러 사회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중선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장은 "우리 지역사회 대학생들이 국민연금 공단 서비스에 매우 만족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최민환·윤희, 결혼 5년만 이혼... "아이는 아빠가 양육"

밴드 'FT아일랜드'의 최민환(31·사진)과 걸그룹 '라붐' 출신 윤희(26·사진)가 결혼 5년 만에 이혼한다고 밝혔다.

최민환은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랜만에 전하는 안부가 가볍지만은 않다. 신중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돼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오랜 논의 끝에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만들겠다는 저희의 결정에 대해 응원해주고 지켜봐준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가족과 팀 멤버들 그리고 응원해 준 팬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미안하다. 또한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 아빠로서 역할을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민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는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고 이혼조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갖기로 합의했다. 갑작스러운 소식으로 두 사람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윤희도 이날 본인 소셜 미디어에 "많은 시간 노력하고 대화한 끝에 저희 부부가 서로 각자의 길을 응원하기로 했



최민환

윤희

다"고 적으며 "부부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만 아이들의 엄마, 아빠로서 끝이 아니기에 두 사람 모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보살피고 소통하고 있다. 현재 아이들은 많은 시간 고민한 끝에 현실적인 문제들과 최대한 심리적인 불안함이 크지 않도록 지금까지 생활하던 공간에서 지내는 게 맞다고 판단해 아이 아빠가 양육하고 있다.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아이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응원해주신 만큼 이 소식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 많은 걱정을 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 내린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니 따뜻한 시선으로 봐달라"고 청했다.

한편 최민환과 윤희는 2017년 열애 사실이 알려졌다. 이듬해 5월 아들을 낳고 같은 해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2020년 2월 쌍둥이 딸을 품었다.

이주영 기자

BTS RM·지민·뷔·정국, 육군현역병 입대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인 RM, 지민, 뷔(V), 정국이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공식 확인했다.

빅히트 뮤직은 5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RM, 뷔는 각각의 절차에 따라 입대 예정이며 지민, 정국은 동반 입대 예정으로 신병교육대 입소 당일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으며 "신병교육대 입소식은 다수의 장병 및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다.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팬 여러분께서는 현장 방문을 삼가달라"면서 "RM, 지민, V, 정국을 향한 따뜻한 배움과 격려는 마음으로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청했다.

또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을 무단으로 사용한 각종 투어나 패키지 상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당사에서는 아티스트 IP를 무단 활용한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

고했다. 앞서 네 멤버들이 입대하는 날짜와 장소까지 알려졌다. 빅히트 뮤직은 이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으며 뷔와 RM이 11일 충남 논산, 지민과 정국이 12일 경기 연천의 훈련소로 입소한다는 설이 나왔다. 특히 지민과 정국은 훈련병으로 조교로 복무 중인 진과 재회한다는 보도가 더해졌다.

앞서 진과 제이홉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각각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조교로 복무하고 있고, 슈가는 지난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 중이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 빅히트 뮤직과 모회사 하이브가 바라는 것처럼 2025년부터 멤버들의 단체 활동 재개가 가능하게 됐다. 그해 6월 이후에 본격적인 음악작업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기자